

다산포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에서는 벌써 여러 해에 걸쳐 ‘한반도 메가리전’ (The Korean Mega Region)을 설정하고 개념과 설계를 연구하고 있다. 당연한 남북 관계를 넘어 실질 관계로서 남북과 생태계 그리고 동북아를 아우르고, 한반도의 남북한 경제를 이끌고 선도해 나가는 핵심 지대이자 성장 거점을 지칭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충청북부·강원 서부), 북한의 평양권(평양·남포)과 황해남북도, 그리고 한강 하구와 한반도 중서부 인근 서해를 주요 구성 지역들로 한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사자들과 6자 회담 당사자와 유엔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거대 복합 산업·경제·문화·관광 지대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중심’, ‘남북 공동 번영의 종합 현장’,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공간’, ‘4차 산업혁명과 그린딜의 시발점’이라는 특성과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 중심 지역들 간의 연계와 통합을 바탕으로 한다. 한반도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최대 생산 지대이면서도 지리적 위치와 여건상 한반도 메가리전 내 전 지역

남북한 동업합시다! 한반도 ‘메가리전’

을 일일 통근·생활권으로 결합할 수 있다. 평양과 서울 간의 거리는 220km인데 시속 300km의 고속철도로 약 45분 정도 소요된다. 해주와 철원도 ‘한반도 동서 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수 시간 만에 왕래할 수 있는 거리이다. 강하·김포·파주와 해주·강령·개성 간 교통은 수로가 보장되고 철도 및 도로가 마련될 경우 이보다 더 수월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노무현 정부와 북한 김정일 정권 간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한강 하구 남북 공동 활용 합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제안,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 간의 ‘서해경제 공동특구’와 ‘동해관광 공동특구’ 설치 합의 등에 기초하면서, 이를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엮어서 한반도 남북 통합 경제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합의 사항들과 제안이 남북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점’과 ‘선’이라면, 한반도 메가리전은 이러한 남북 협력의 ‘점’과 ‘선’을 연결하고 그 사이의 공간을 메워써 남북 협력의 거대한 ‘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남북 협력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점→선→면의 순차적 확대 전략’을 따른다면, 한반도 메가리전은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완성된 형태의 종합적인 남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방식을 넘어서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의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인 접근법의 활용과 지

원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한반도 국제협력 지대’의 창설을 구축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첨단 기술과 녹색 혁명을 지역 내 산업 발전의 방향타이자 지침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한반도 메가리전의 핵심에 위치한 한강 하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딜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이다.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IT, 바이오, 스마트 팜, 신재생에너지, 생태 보전, 해양수산, 녹색 관광 등에서 상호 협력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국과 북한의 중심 지대를 엮고 묶어서 한반도 중서부 일대를 한반도 남북 통합 경제권의 중추 기지이자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한반도 메가리전은 한국과 북한 당해 지역들 간에 협력과 연계, 분업과 협업, 보완과 대체의 역할을 분담토록 한다. 다만, 한반도 메가리전 전체 차원에서 복합 네트워크와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실현하는 것이 성과를 가를 것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이 남북한의 중심 지대를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할 경우, 한반도 메가리전은 한반도 최대·최고의 복합 산업·경제·문화·관광 지대로서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통합의 한반도를 이끌게 될 것이다. 또한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 등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핵심 경제권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춘 특독

‘학폭 미투’ 용기 있는 폭로가 만드는 정의 사회



최윤진
조대신문 편집국장(신방과 3)

중·고등학교는 개학을, 대학은 개강을 하는 1학기 초는 학생에게 한 해의 시작점과도 같다.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 새로운 캠퍼스... 그러나 낭만과 희망이 가득해야 할 새 출발에도 전혀 들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번지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됐던 과거와 달리 범죄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주연 배우를 교체한 점이 대표적인 예다.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은달 역을 맡은 지수가 학교폭력 논란이 일자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긴급하게 투입해 7회부터 다시 제작했다. 아울러 배우 지수의 소속사에

대해 재촬영 비용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속되는 학교폭력 피해 폭로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과 공인을 약의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는 여론이 팽팽히 대립 중이다. 피해자 주장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억울한 누명을 쓴 공인이라면 제 과거에 죄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이고, 주동자와 동조자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2017년 6월 19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시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장난을 빙자한 폭력적 행동도 분명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북 ‘학교폭력 유형’에서 “장난을 빙자한 괴롭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 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신체 폭력으로 규정했다. “장난 또는 사소한 행위, 무심코 한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란 주장에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피해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 가이드북은 ‘아이들은 원래 싸우면서 지른다’는 얘기도 잘못된 통념이라고 고집했다.

피해자의 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라면 가해자가 주동자와 동조자를 나누는 것 또한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뺌하려는 하나의 선긋기일 뿐이다. 사건에는 가해자, 피해자 말고도 모든 걸 지켜보지만 하는 방관자가 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것도 엄연한 잘못이다. 물론 방관자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고, 피해자와 엮여 가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무시한 방관자들 또한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다. 그렇기에 방관자였던 사람들도 후에 피해를 겪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위선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누군가가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 듣고... 매일 맞던 것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서 내용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공인이 된 가해자를 마주한다면 과연 어떤 기본일까.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라 확고히 말하긴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변화의 한 징조라는 생각이 든다.

기고

‘슬기로운 금융생활’



심광섭
농협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지난해 봄을 강타한 TV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20년 넘게 우정을 가꾸어 온 의사들이 환자들과 함께하는 드라마다. 주인공들 모두 실력과 인성이 훌륭해서 도무지 현실에서는 만나 보기 힘든 캐릭터들의 이야기다. 그런데도 어떤 점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이 드라마의 인기는 살면서 맞게 되는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그에 수반되는 마음의 고통까지 공감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인 듯하다.

병원을 가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금융회사를 가게 된다. 병원 검진을 통해 미리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꾀하듯이, 금융생활도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생활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예금이나 투자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 방

법을 개선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기르고 따스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들의 상황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의 권리는 환자가 법적·도덕적·윤리적으로 당연히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누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된 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듯하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 3월 25일자로 시행됐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발의된 이후 9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 강화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등을 통한 소비자 권리 행사 확대 △분쟁 조정·소송 등을 통한 소비자 사후 피해 구제 등이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능에 따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고, 금융회사 또한 직접 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던 6대 판매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금소법으로 금융 소비자가 보장받는 세 가지 권리는 금융상품의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워킹 계약 해지권’, 금융상품 계약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소비자가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료 열람 요구권’이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와 사후 제재가 강화된 만큼 금융 소비자는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인지, 거래 비용·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된 금소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금융상품 판매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의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적용이 최대 6개월 유예되었다. 상호금융업권의 지역 농·축협이 경우 보험·카드·펀드 상품은 3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예금·대출 상품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금소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욱 올바른 금융 문화가 정착되어 모두가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전남대학교 교정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대학 교정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한 것일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전남대학교가 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교육부·중기부의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전남대가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23개 대학이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최종 선정된 곳은 전남대와 경북대 두 곳뿐이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혁신적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산학연이 연계되는 지역 상생 발전 플랫폼인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500억 원(국비190억 원·지방비 85억 원·LH 225억 원)이 투입된다. 전남대 내 1만9436㎡ 유휴부지에 연면적 2만 2350㎡ 규모의 산학 협력 공간을 조성, 연구·생산·정주·생활·문화 시설이 집적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미래 신산업 입지가 혁신 환경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나한 것일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전남대학교가 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교육부·중기부의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전남대가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23개 대학이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최종 선정된 곳은 전남대와 경북대 두 곳뿐이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예산 증액에 힘을 보태고, 광주광역시가 80억 원, 북구가 5억 원 및 진입도로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전남대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아무쪼록 이번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계기로 광주 지역의 산학 협력과 창업 지원 생태계가 더욱 힘찬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자성과 함께 당 쇄신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데 이어 재선 의원들도 지난해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모임을 갖고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20~30대 초선 의원 다섯 명은 엇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은 재보선 참패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민생에 소홀했다’며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어느새 기득권 정당이 돼 있었다.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

들었다”고 반성했다. 81명의 초선 의원들은 전체 모임의 명칭을 ‘더민조’(더불어 초선 모임)로 정하고 앞으로 당 정책과 운영 방식 등을 철저히 점검하며 쇄신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데 이처럼 당의 쇄신을 촉구했던 초선 의원들이 일부 강성 권리당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재보선 참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했다는 이유인데, ‘초선 5작’ ‘배은망덕’ 등 비난의 수위도 거칠다. 하지만 선거 참패의 원인을 성찰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공격은 도를 넘은 듯싶다.

어제 열린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민주당 패인의 하나로 반대 논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점이 짚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진로를 제대로 정립하려면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지양하고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주말, 오렌잔에 걸여 본 무등산 트레킹 길엔 봄이 화사하게 만개했다. 온통 연두빛으로 물든 산자락에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봄과 2주 전만해도 쌀쌀한 바람 속에서 홀로 봄이 왔음을 알렸던 벚꽃과 목련은 무심하게 모든 꽃잎을 떨구었다. 그래도 깊은 숲길 사이에 드문드문 보이는 진달래꽃이 길을 돕는 듯했지만, 계절은 이제 막 봄을 지나고 있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여파로 정치권이 들쭉이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습책’을 놓고 고민 중이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야권 통합’을 두고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내년 봄 대선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쇄신론을 두고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 격화하는 조짐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야권 통합을 외치고는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대표를 포용할 수 있는 내부 역량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꽃의 정치학

벚꽃이나 산수유, 개나리, 목련, 진달래 등 봄을 알리는 꽃들 대부분은 선화후엄(先花後葉)의 목본식물이라고 한다. 잎보다 먼저 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식물들은 먼저 난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고 그 영양분으로 꽃을 피워 내지만 이들은 그 반대인 것이다. 목본식물이 잎이 나기 전 꽃을 피우는 이유는 생선 때문이라고 한다. 먼저 꽃을 피워 수정을 이룰 줄 벌과 나비 등을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꽃을 먼저 피우기 위해 잎이 무성한 여름과 가을에 만들어 낸 영양분을 꽃눈에 저장하고 겨울을 견디는 것이다. 내일을 위한 헌신과 인내는 생존의 지혜가 꽃과 잎 모두에 담겨 있는 셈이다.

정당은 집권을 위해 존재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무능과 오만’의 프레임은 깨는 것이 급선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혁신 보수’로의 전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여야 모두에게 집단 지성을 통한 내부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헌신과 인내를 통해 미래 비전을 충실히 마련한 정당이 내년 봄 대선 승리의 꽃을 피워 낼 것이다. 꽃은 결코 그냥 피지 않는다. 지금 여야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